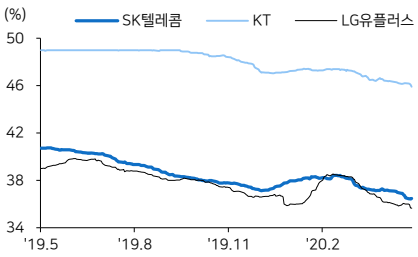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2.2	2.9	-8.9	-6.3	13.8	13.8	0.8	0.8	2.3	2.3
통신업종	-0.3	-1.2	-4.9	-12.7	10.9	10.9	0.6	0.6	4.4	4.4
SK텔레콤	2.2	-3.2	-5.0	-11.5	11.9	7.8	0.7	0.7	4.8	5.0
KT	-2.2	2.3	-2.2	-8.0	8.9	7.8	0.4	0.4	4.6	4.8
LG유플러스	-5.1	1.5	-7.1	-4.7	11.1	9.7	0.8	0.7	3.1	3.3
AT&T	5.5	1.3	-21.1	-18.4	9.3	8.9	1.1	1.1	6.9	6.9
Verizon	-1.1	-6.1	-6.0	-7.5	11.4	11.0	1.1	2.9	4.6	4.7
T-Mobile	-1.6	6.0	-2.8	21.9	29.1	29.5	2.0	1.9	0.4	2.0
NTT Docomo	-2.7	-9.8	-3.9	1.1	16.2	15.9	1.8	1.8	4.0	4.2
KDDI	-2.8	-4.4	-8.6	-0.8	11.3	10.9	1.6	1.5	3.7	4.0
Softbank	0.7	3.6	-18.2	11.5	N/A	17.2	1.1	1.0	1.0	1.0
China Mobile	-0.8	-8.7	-15.1	-8.4	9.7	9.5	0.9	0.9	5.8	6.0
China Unicom	-7.4	-12.2	-34.2	-38.7	9.9	8.5	0.4	0.4	4.0	4.6
China Telecom	-2.0	-7.7	-24.6	-22.1	8.6	8.1	0.5	0.5	5.2	5.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6.4% (-0.1%p WoW, -0.8%p MoM)
KT 45.8% (-0.4%p WoW, -0.7%p MoM)
LGU+ 35.6% (-0.5%p WoW, -0.7%p MoM)
KT, LGU+ 외국인 지분율 대폭 하락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5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5%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최근 한달 간 경쟁사 대비 Underperform을 지속했던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
중국 양회 개최 이후 5G 투자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통신장비주들도 긍정적 수익률 기록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순매수, KT,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통신3사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COVID-19 각국 정부의 5G 투자 결정에 주목
특히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0.8%p YoY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 계획 발표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세 지속 예상
글로벌 5G 투자 본격화와 함께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및 관련 통신장비주들의 수혜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7	18	19 국회 법사위	20 국회 본회의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주간 뉴스

▶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자율 경쟁 시대로" (이데일리)

- 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 '신고유보제' 등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
- 유보제는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요금인상 우려로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면서 추가 입법 등에 의지
⇒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긍정적인 뉴스. 추후 요금 인상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인가제 폐지로 강제적 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며, 더 강력한 담합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 '넷플릭스법' 국회 통과…"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 내야" (한국경제)

-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기존 ISP뿐 아니라 망을 활용하는 CP에게도 책임 부과.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
- 해외 사업자들에게 실제 집행 여부는 의문. 국내 CP들은 망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
⇒ CP들에게 망이용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SKB 승소 가능성도 증가
⇒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CP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등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

▶ 1~2% 성장땐 정권 치명타…中 1,000조 '슈퍼 부양책' 꺼냈다 (서울경제)

- 중국 정부는 22일 전인대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부양 패키지 가동 시작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보다 0.8%포인트 높은 3.6% 이상으로 설정. 감세정책도 실시
- 5G 통신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꾀할 계획
⇒ 한국도 디지털 뉴딜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신경제를 강조하는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 아직 글로벌 5G 상용화는 초기 단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5G 상용화 가속될 전망

▶ 美 "한국도 화웨이 옥죄기 동참하라" (IT조선)

- 미 정부가 탈중국 공급망을 추진중인 가운데 특히 화웨이 제품 배제를 한국 포함 동맹국에 요청
- '5G 클린패스 구상'을 설명하며 화웨이,ZTE 등 신뢰할 수 없는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
-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블록인 EPN에 대한 구상도 공유
⇒ 5G SA 장비에 대한 장비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통신사는 화웨이 장비 선정에 있어 부담감
⇒ 홍콩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국-중국 간 갈등 격화. 특히 미 야당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상황

▶ LG유플러스, 5G 기업전용망 서비스 출시 (파이낸셜뉴스)

- LG유플러스는 5G 통신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출시. 공장, 병원 등 산업 현장 스마트화에 가속도
- 일반 5G망 보다 전송 속도와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인 서비스 가능. 스마트 팩토리 구현도 지원
- 특정 단말을 장소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등 선택지가 많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장점
⇒ LG유플러스는 GS EPS부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항만공사 등 다양한 산업과 협업을 진행 중
⇒ 글로벌 통신사들의 B2B 사업 확장을 본격화. SA 상용화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 갤노트10 지원금 올린 LGU+, 갤노트9 재출시한 SKT (머니투데이)

- LGU+는 갤노트10 공시지원금을 기존 요금제별 10.1~18.8만원에서 32.6~50만원으로 상향
-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편이 더 유리
- SK텔레콤은 2018년 하반기 출시된 갤럭시노트9을 재출시하며 LTE 고객 유출 방지에 노력
⇒ 플래그십 모델에 있어서는 경쟁이 둔화되는 모습이나 구형 모델 중심으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
⇒ 전반적으로 통신3사들의 번호이동 마케팅 경쟁은 진정 추세를 유지하며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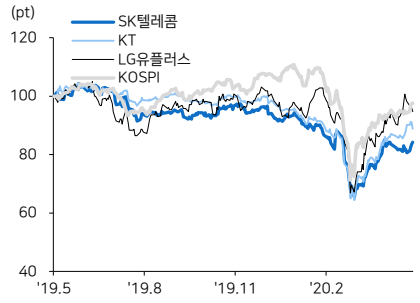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08,500	13.7	15.2	15.9	1.0	1.2	1.1	1.7	4.4	4.6	4.8	4.7	5.8	8.4
	KT	24,150	5.1	20.0	20.6	1.0	1.1	0.6	0.7	4.1	4.2	2.7	2.6	5.2	5.7
	LG유플러스	13,150	4.7	11.2	11.7	0.7	0.7	0.4	0.5	2.6	2.7	3.8	3.6	7.2	7.8
미국	AT&T	29.9	212.9	170.8	174.1	34.9	36.0	22.2	23.1	56.2	57.4	6.6	6.5	11.5	11.8
	Verizon	54.1	223.9	126.9	131.9	29.3	31.1	19.0	20.2	46.5	47.9	7.3	7.1	29.9	28.1
	T-Mobile	96	118.4	65.1	73.0	6.9	7.7	3.7	3.3	19.1	21.0	7.8	7.1	7.8	7.1
일본	NTT Docomo	2,971.0	89.4	43.4	43.3	8.0	8.1	5.5	5.6	13.6	13.5	6.7	6.7	11.2	11.5
	KDDI	3,075	67.5	48.6	49.6	9.7	9.8	5.9	6.1	15.7	16.2	5.4	5.2	14.9	14.6
	Softbank	4,607	89.7	57.2	73.8	-12.6	9.5	-7.1	4.6	5.7	19.9	43.6	12.4	-11.3	7.3
중국	China Mobile	56.2	148.3	106.8	111.4	16.1	16.6	15.3	15.8	41.3	42.2	2.5	2.4	9.5	9.5
	China Unicom	4.4	17.4	41.8	43.5	1.9	2.3	1.8	2.1	13.5	14.0	1.6	1.5	3.9	4.4
	China Telecom	2.4	25.0	54.7	56.7	4.1	4.3	3.0	3.1	16.8	17.1	2.3	2.3	5.8	6.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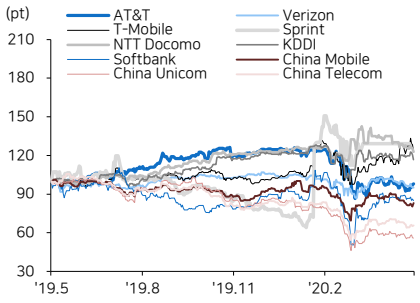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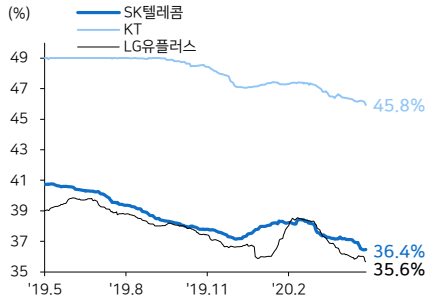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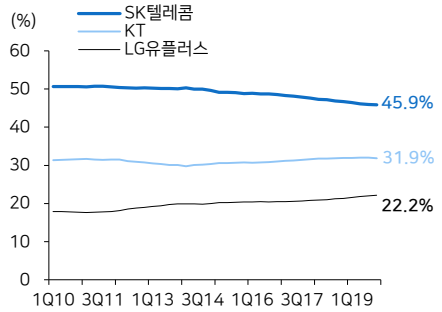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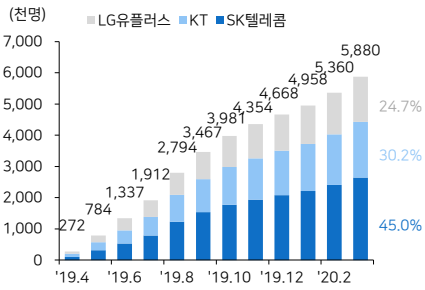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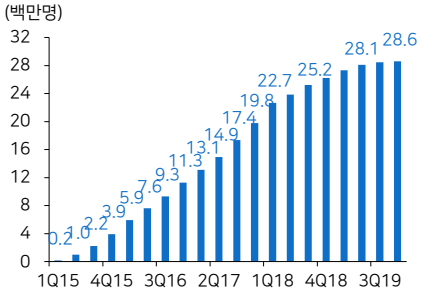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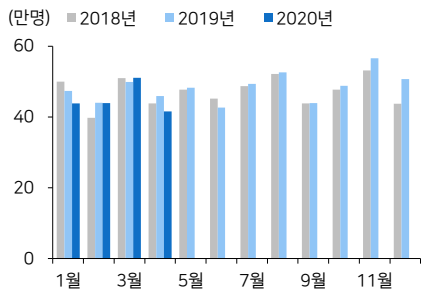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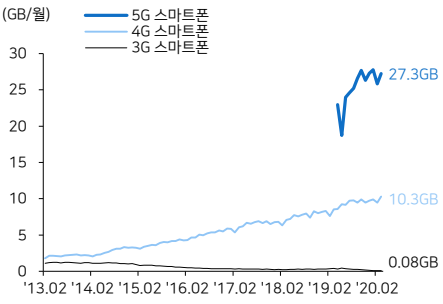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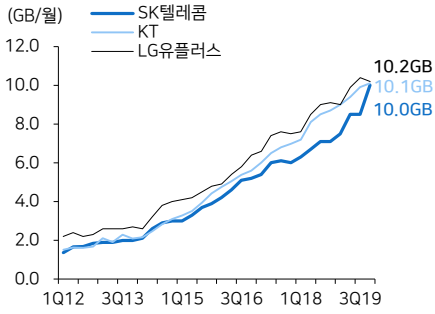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